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FinanceYahoo: 홀리데이 시즌 소매 지출 3.8% 증가...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 Bloomberg: 11월에 미 신규 주택 판매 반등...허리케인 피해 후에
- Bloomberg: 미 '지속적인' 실업 청구 건수, 3년여 만에 최고치

[트럼프 행정부]

- WSJ: 트럼프 관세안, 저렴한 자동차에 큰 타격

[인공지능]

- FinanceYahoo: 기술 대기업들, 내년에 AI 소프트웨어 대거 출시

[오일]

- Bloomberg: 중국, 미국산 석유 수입 감소
- Bloomberg: 유가 상승...중국 부양책과 미국 비축량 감소 때문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이마트와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 합작
- CNNBusiness: 미 소비자금융보호국 "월마트, 불법 은행 계좌 개설"
- CNBC: 2024년 미 항공사에 발생한 주요 사건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FinanceYahoo: Holiday shoppers increased spending by 3.8% despite higher prices

홀리데이 시즌 소매 지출 3.8% 증가...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 올해 홀리데이 시즌에 많은 식료품과 다른 필수품들의 가격이 올랐음에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
- 거래 가격을 추적하는 Mastercard SpendingPulse에 따르면 11월 초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의 홀리데이 시즌 판매가 3.8%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1% 증가한 것이다.
- 올해의 경우 예년에 비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사이에 기간이 5일 짧아졌기 때문에 판매업자들은 소비자들이 더 빨리 제품을 구매하도록 애를 썼다.
- 의류는 온라인 판매에 힘입어 3.6% 증가했다. 외식과 전자 제품 구입, 보석류 구입이 증가했다.
- 온라인 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7% 증가했으며, 대면 판매는 2.9% 상승했다.

FinanceYahoo 기사

Bloomberg: US New-Home Sales Rebound in November After Storm-Stricken Month**11월에 미 신규 주택 판매 반등...허리케인 피해 후에**

- 11월 미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반등했다. 미 남부의 허리케인으로 지연되었던 건축업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가 성사되고, 구매자들이 구매 인센티브를 활용한 데 따른 것이다.
- 11월에 남부 지역 주택 판매 건수는 거의 14% 회복되었다. 중서부 지역도 지난 2021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북동부와 서부는 주택 판매가 감소했다.
- 지난달 신규 주택 평균 가격은 4만2천6백불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3% 증가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Continuing Claims Rise to Highest in More Than Three Years**미 '지속적인' 실업 청구 건수, 3년여 만에 최고치**

- 지속적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3년여 만에 최고치를 보여 미국인 실업자가 일자리를 자기 찾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올해 들어 점차 증가했다.
- 연방 노동부의 오늘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12월 14일에 끝나는 주간 동안 지속적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1만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9천건으로 감소했다.

Bloomberg 기사

[트럼프 행정부]**WSJ: Trump's Tariff Plan to Hit Affordable Cars the Hardest****트럼프 관세안, 저렴한 자동차에 큰 타격**

- 최근 재정이 뻣뻣한 미국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차량을 미국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트럼프 새 행정부의 관세안이 시행될 경우 멕시코산 수입 차량에 대한 관세로 인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 차량 쇼핑 사이트인 Edmunds에 따르면 닛산 센트라, 포드 Maverick 등 3만달러 미만으로 미국에서 팔리는 차량의 거의 3분의 1이 멕시코에서 생

산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저렴한 차량의 5분의 1만이 멕시코에서 생산
됐다.

- 멕시코는 가격이 낮고, 대형 트럭과 SUV보다 크기가 작고, 마진이 적은 소형 모델 생산을 위해 생산업자들이 선호하는 나라였다.
-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에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경우 해당 차량 모델들의 가격이 올라 매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WSJ 기사

[인공지능]

FinanceYahoo: From Microsoft to Nvidia, the AI agents are coming in 2025

기술 대기업들, 내년에 AI 소프트웨어 대거 출시

- 올해 인공지능은 챗봇이 유용했다면, 내년에는 AI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인공지능 분야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 이들은 사용자가 업무 처리를 요청하면 슈퍼 파워 AI봇을 사용해 이메일 등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다른 앱으로 가져와 업무를 처리한다. 이에 따라 인사 관리 등 일처리 시간이 더 짧게 소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등이 이 같은 AI 에이전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과 소비자들은 AI 기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게 될 것으로 보인다.

FinanceYahoo 기사

[오일]

Bloomberg: US Oil Exports to China Dwindle as Demand Wanes, Buying Shifts

중국, 미국산 석유 수입 감소

- 중국의 미국산 석유 수입이 46% 감소했다. 중국의 경제 약화와 전기차 등 대체 에너지 사용 증가로 인한 석유 수요 감소 때문이다. 중국의 전체 석유 수입량은 작년보다 7.2% 감소했다.
- 또한 중국은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미국 외 국가에서 석유 공급을 늘리고 있다. 중국은 올해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의 해상 원유 약 26%를 수입했다. 작년엔 24%를 수입했었다.
- 글로벌 무역 거래 데이터 관련 Kpler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산 석유 수입은 작년 1억5천60만 배럴에서 올해 8천1백90만 배럴로 감소했다. 중국은 작년 미국의 석유 수출 2위 국가에서 올해 6위로 내려갔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Oil Holds Gain on China Stimulus, US Stockpiles Drop 유가 상승...중국 부양책과 미국 비축량 감소 때문

-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미국의 원유 비축량 감소 소식에 유가가 상승했다. 브렌트유는 1.3% 상승한 배럴당 74달러에 거래됐다.
- 중국은 국채 판매를 위해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주 상업용 원유 재고가 320만 배럴 감소했다. 5회 연속 감소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원유 비축량은 12월에 감소하고 다음 해 1월에 증가한다.
- 2025년을 앞두고 트레이더들은 트럼프 당선인,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글로벌 원유 공급 전망을 살펴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E-mart, Alibaba Plan Online-Shopping Joint Venture 이마트와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 합작

- 중국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와 한국 이마트의 지마켓이 결합해 50대 50의 합작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합작 회사는 2025년에 출범할 계획이다.
- 이마트의 모회사 신세계 그룹은 합작회사 설립과 별개로 두 플랫폼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알리바바와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고객 경험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WSJ 기사

CNNBusiness: Walmart illegally opened bank accounts for over 1 million drivers, CFPB alleges 미 소비자금융보호국 “월마트, 불법 은행 계좌 개설”

- 이번 주 월요일,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은 월마트와 핀테크 기업 Branch Messenger가 1백만 명 이상의 배달 기사에게 회사가 개설한 예금 계좌를 이용해 월급을 받도록 강요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두 회사는 허가 없이 배달 기사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예금 계좌를 개설했다. 소장에 따르면 2021년부터 월마트는 배달 기사들에게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말해왔다.

- 그리고 해당 계좌에서 임금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는데 총 1천만 달러의 정크 수수료(junk fees)가 발생했다고 CFPB는 주장했다.
- 지난 월요일, 월마트는 성명을 통해 “CFPB 주장에는 오류가 많고 과장된 허위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CFPB는 월마트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회사를 적극 변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CNNBusiness 기사

CNBC: Airlines' wild 2024: From Boeing troubles to a bankruptcy and a merger 2024년 미 항공사에 발생한 주요 사건들

- 2024년은 미 항공사에게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1월 5일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의 문 패널이 이륙 중에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다.
- 그로부터 2주 후, JetBlue의 Spirit Airlines 인수가 연방 법원에서 거절됐다. JetBlue의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된 Spirit은 11월에 챗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 델타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높은 수익을 기록했으며, 주가 기록을 경신했다.
- 미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수장 Mike Whitaker는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 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5년 임기 중 1년 만에 사임하는 것이다.
- 올해 항공사들은 프리미엄에 집중했다. 비행기 앞쪽 고급 좌석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격을 낮추는 과잉 항공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 간에 경쟁이 있었다.
- 국제 여행은 여전히 수요가 높다. 전반적인 항공 여행 수요는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항공사 CEO들은 내년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이다.

CNBC 기사

[보고서]

美 연준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변경 착수... "월가 큰 승리" "행정부 유권해석 우위" 1984년 판례 뒤집은 대법원 결정에 따른 것"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s·위기 상황 분석) 투명성을 개선하고, 은행 자본 요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주요 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연준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위급 상황을 가정해 은행의 재정적 회복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 가상 시나리오 모델에 대한 공개와, 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잠재적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은행이 따로 마련해야 하는 자본금의 연간 변동성을 줄일 수 있도록 2년 치 평균값을 도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